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1902_김직술(金直述) 지음_25.0×89.0cm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후 폐지된 서원 향사를 운영하고자 절목을 제정하고 관의 지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기록을 적은 것이다. 갑오개혁으로 서원 향사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무성서원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향사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과도 밀접한 마찰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당시 관찰사와 수령이 이전과 같이 원장과 원이를 겸임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문은 김직술(金直述)이 작성하였다.

武城書院記

夫設校宮建院祀朝家之盛典繼掖首善之重地而校院之興廢在於守宰尊慕之如何矣昔柳刺史之治柳州也大修夫子之廟范文正之守嚴州也始奠先生之祠皆莫非尊賢重祭之義也本院自肅廟朝丙子賜額因爲道院享需之節依禮率行矣自甲午新式以後舊章仍遵先賢享需之節多士供億之資只有所費別無所補存是院去其例則市脯不足備邊豆儀物無以稱縑盛冠儒服儒者莫不齊歎慕賢尊賢者孰敢越視於是乎道內章甫公議齊發本郡本面庖肆付于本院需脯次儒林黃基煥金直述權鍾林金邦勳柳種奎金炳淵累呈府郡出題飭成節目稅金以六十兩定數自齋中上納而以補春秋享祀之需遠近章甫之供矣是歲夏所謂派員董罔念道理肯欲侵責幸茲趙相公漢國氏殿南服孫侯秉浩氏守是邦也帝院長院貳之任而特出慕尚之誠敬薦俎豆之禮公政一出儀物復新上以答聖朝崇獎之恩下以副章甫願興之望存羊之義視牲之禮回粗而轉潔反薄而爲豐其一省內頌德之聲百世下不朽之蹟可肩於古之柳刺史范文正矣將欲登梓裏後不揆譎劣因揭題末爲之記

壬寅菊秋康津金直述謹記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무릇 학교를 설치하고 원사(院祠)를 세우는 일은 조정의 성대한 의식이니 모범을 세울 만한 땅을 찾아야 하며, 학교와 서원의 흥폐(興廢)는 수령이 어떻게 존모(尊慕)하는가에 달려 있다.

옛날에 자사(刺史) 유종원(柳宗元)이 유주(柳州)를 다스릴 때 공자(孔子)의 사당을 대대적으로 보수하였고, 문정공(文正公) 범종엄(范仲淹)이 엄주(嚴州)를 다스릴 때 비로소 엄광(嚴光) 선생의 사당에 제사를 드렸다. 이 일은 모두 현인을 존모하고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의리가 아님이 없었다.

본 무성서원(武城書院)은 숙종조 병자년(1696, 숙종 22)에 사액받은 이후로 도를 갖춘 서원이 되어 제향(祭享)하는 절차를 예에 의거하여 시행하였다. 갑오년(1894, 고종 31)에 새로운 제도가 세워진 이후 선현들을 제향하는 옛 제도들도 폐지되었다. 많은 선비들이 물품들을 대었으나 단지 필요한 비용으로 소비되었을 뿐 보태거나 남길 수는 없었다.

이 서원에서 그 법식을 없앤다면 시장에서 사온 포육으로는 제사에 사용하는 음식이나 제물을 농기에도 부족하였으며, 제사에 올리는 곡식[黍稷]도 딸 수 없었으니 유자(儒者)라면 모두가 함께 안타까워하였다. 현인을 존모하는 일을 누가 감히 남의 일 보듯 하겠는가? 이에 도내의 유생들이 공문을 함께 내었으며, 본 군 본면의 푸듯간에서도 본 서원에 필요한 제사용 고기를 내려 놓았다. 다음으로 유림 황기환(黃基煥), 김직술(金直述), 권종림(權鍾林), 김방훈(金邦勳), 유종규(柳種奎), 김병용(金炳庸)이 여러 차례 부군(府郡)에 글을 올려 제척(題勅)을 내고 절목(節目)을 만들도록 하였다. 세금 60냥을 정수(定數)로 삼아 재중(齋中)에서부터 상납하였고, 봄가을로 제사지낼 때의 제수는 원근 유생들이 도움을 주었다.

이 해 여름에 이른바 파관[派員]들이 도리를 잊고 책임을 추궁하려 하였다. 다행히 이때 상공(相公) 조한국(趙漢國)이 남쪽 지방[전라도]을 다스렸고, 손병호(孫秉浩)가 이 고을의 수령을 맡고 있었다. 원장(院長)과 원이(院貳)의 임무를 겸임하며 특별히 존모하고 숭상하는 성심을 드러내었고 제사지내는 조두(俎豆)의 예를 공경하게 바쳤다. 공정한 정사가 한 가지로 나오고 의식에 소요되는 물품[儀物]이 다시 새로워졌다. 위로는 어진 조정에서 숭상하고 장려하는 은혜에 답하였고, 아래로는 유림들과 고을[興甯]의 바람에 부합하였다.

전대의 예법을 보존하고자 하는 존양지의(存羊之義)가 희생을 바치는 제례에 비해서는 성글기는 하지만 외려 깨끗하고, 담박하지만 외려 풍성한 것이니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마음을 살피고 공덕을 기리는 소리가 백세 이후라도 썩어 없어지지 않는 사적이 될 터이니 가히 그 옛날 유종원과 범종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차 판각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변변찮은 내 능력을 해라지 못하고 일의 전말을 기록한다.

임인년(1902, 광무 6) 9월 강진(康津) 김직술(金直述)이 짓다.